

# 들만하면 대형이슈... 손학규 징크스?

### ‘저축銀 커넥션’ 터져 야 대권주자 굳히기 발목

### ‘민생진보’ 향한 인적·정책쇄신 드라이브 주춤

야권의 대표적 대선주자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 정국이 흐름이 장에 가 되고 있다. 좋은 분위기를 흐름으로 만들어야 할 시점에 국민적 관심을 끄는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야권 내에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4·27 분당 재보선 승리 후 통합과 혁신, ‘민생 진보’를 키워드로 대대적인 인적·정책 쇄신 드라이브를 거두려 했으나 저축은행 사건이 정국을 갈타하는 바람에 당분간 추진력을 살려가기 어렵게 됐다. 때문에 상승하던 지지율도 주춤거리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선 “무엇인

가 좀 해보려면 대형 이슈가 터져 상황이 꼬여버린다”며 아쉬워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징크스’로 굳어지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손 대표는 지난 2006년 10월 9일 ‘100일 민생 대장정’을 마쳤지만, 이날 북한이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여론의 주목을 크게 끌지 못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표의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서울광장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하루 만에 농성을 접어야 했다.

손 대표는 이처럼 그동안 ‘북한 징크스’에 시달려온 데 이어 이번에는

‘저축은행 블랙홀’에 파묻히고 있다. 이에 손 대표는 다른 행보는 잠시 뒤로하고 일단 6월 국회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초 이달 16일 발족하려던 전국조직인 ‘통합연대’(가칭) 창립대회도 내달로 미뤄졌다.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한 인재영입위 구성이나 야권 통합을 위한 물밑 작업은 진행하되, 저축은행 국정조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6월 국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원내 활동을 통해 야권이 ‘권력형 비리계이트’로 규정된 저축은행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이와 관련, 손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터무니없는 음해와 중상모략으로 몰타기를 시도

하고 있다”면서 “여당 국회의원이 이명박 정권의 비리를 덮는 특공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정략적으로는 좋은 전략일지 모르지만 비리를 덮으려다 보면 국회에서 민생이 사라진다”며 “도가 지나치거나 상식을 벗어난 정치는 또다시 현정권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국회는 9년만의 복귀 무대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한술밥을 먹게 된 한나라당의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의 정책 및 대결도 예고돼 있다.

손 대표의 한 측근은 5일 “손 대표의 연세나처럼 지지율이나 순간의 관심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국민만 바라보고 긴 호흡으로 정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손 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법안 처리 등을 진두지휘하며 ‘민생진보’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당·나라 위해 노력” “민생중심 국정을”

### 이대통령-박근혜 전대표 단독회동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서로 협조하고 노력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공정한 대선 관리’를, 박 전 대표는 “국정 운영 협조”를 서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최근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그리스 유럽 3개국을 다녀온 박 전 대표와 수행 의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수방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점심 식

사를 함께한 뒤 별실로 자리를 옮겨 55분 동안 단독 회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면담 직후,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직접 브리핑을 했다. 박 전 대표는 “정치 논쟁을 협조”를 서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꼭 그렇게 힘써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꼭 그렇게 힘써 달라. 당도 무엇보다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박 전 대표가 전했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통합’에 방점을 찍은 것은 고질적 병폐인 계파 간의 갈등이 가져올 내년 총선과 대선의 ‘약령향’을 최소화, 총선 승리 및 정권재창출에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관측이다.

박 전 대표는 또한, “이 대통령에게 ‘국정의 중심을 민생에 뒀서 성장의 온기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와 닿을 수 있도록 국정을 이끌어주셨으면 한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앞으로 국정의 중심을 서민과 민생 그리고 저소득층 중심에 두겠다”고 말했다고 박 전 대표가 전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이 3일 낮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일부 전·현직 국회의원들 보해 임건우 회장 고액후원금 받았다

광주·전남지역 일부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보해저축은행 모회사인 보해양조 임건우 회장으로 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05년 이후 고액 후원금 명단에 따르면 보해양조 임건우 회장은 지난 2009년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최인기 의원에 각각 500만 원을 후원했다.

또한, 2007년에는 대한통합민주당 소속 이상열(500만원), 김성근(200만원), 우윤근 의원(200만원)을 후원했고, 2006년에는

전정배(300만원), 김성근(400만원), 우윤근(200만원), 유선호(300만원), 신중식 의원(200만원)에게 후원금을 전했다.

임 회장은 지난 200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도 2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 측 관계자는 “당시 보해 측 임원 가운데 지역 출신 인사가 있어 후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 의원과 보해저축은행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박근혜 ‘싱크탱크’ 내달 총회 대선 정책 나올까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대선주자로서의 본격 활동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그의 ‘싱크탱크’격인 국가미래연구원 내달 초 첫 총회를 열고 6개월간의 연구성과물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미래연구원은 내달 2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200여명의 정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총회를 개최하며 박 전 대표는 이날 총사를 할 예정으로 5일 알려졌다. 미래연구원은 이날 지난 6개월간의 연구성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미래연구원은 지난해 말 출범 직후 마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외교·안보와 거시금융, 재정·복지 등 15개 분과별로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회원이 모여 스터디를 진행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저축銀 공세 박지만씨로 과녁이동

### “박지만-신삼길-정진석 수석 긴밀한 관계”

민주당은 저축은행 비리 사태와 관련, 공격의 대상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동생인 박지만 쪽으로 집중시키려는 분위기가 있다.

지난 3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삼화저축은행 신삼길(구속기소) 명예회장과 박지만

씨가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은 4~5일에도 이 같은 공격을 이어갔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박지만 부부와 신 명예회장의 의혹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 ‘신삼길 회장과 박지만 그분이

친했던 건 사실”이라고 개인적으로 말했던 분들이 있다”며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의혹을 제기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홍영표 의원은 3일 대정부 질문에서 “신 명예회장과 박지만씨, 정진석 청와대 정부수석이 아주 긴밀한 관계라고 한다”며 “박지만 신 명예회장이 연행되기 두 시간 전 같이 식사했다고 한다”고 주장했

다.

그는 또 “박씨의 부인 서향희씨는 삼화저축은행 고문 변호사였다가 삼화저축은행 사건 직후 사임했다”며 “고문 변호사라면 사건이 발생한 경우 오히려 변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4일에는 민주당 저축은행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대통령 만났고 동생은 신삼길과 어울리고 올케는 삼화저축은행 고문변호사 직을(저축은행) 사내 후 사임하고?”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또 오는 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또 다른 한방”을 터뜨리겠다고 버리고 있다.

예초 민주당은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연루 정황이 드러난 지난달 말 당내 진상조사위를 꾸리고 저축은행 사건과 현 정권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여권에서 호남 출신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의 저축은행 사태 개입설 등을 흘리며 몰타기를 시도하자 민주당은 최근 과녁을 박지만 씨로 옮기는 분위기가 있다. 이는 저축은행을 제도화한 전(前) 정권 실세 상당수가 이번 사태에 연루됐다고 보고 역공을 가해 오는 한나라당의 힘을 빼놓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가 라운지

#### 스마트폰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지난 4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에 담긴 개인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스마트폰 등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저장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제조사 및 공급자가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자동 저장되는 개인 위치정보는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록된 정보의 해킹을 막을 수 있는 보호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민주당 수석 사무부총장 김현미씨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3일 수석 사무부총장에 김현미(49·사진) 전 의원을 임명했다.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주여고와 연세대를 나온 김 수석부총장은 평민당 당보 기자로 시작해 국민의 TV 모니터팀장,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노무현 대통령 언론비서관, 열린우리당 대변인을 지냈다.

정장선 사무총장은 5일 “박영선 정책위의장, 박선속 전략홍보본부장과 함께 여성시대를 열어가면서 내년 총선·대선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점 포가 할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었던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172 (TEL)011-602-2532 (광주광역시 남구, 대인동 삼일부동산)

### 나라공인중개사

#### 펜션텔 매도

전북순창군 북흥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준공

- 대 지 : 10980㎡, 임야 : 13937㎡
- 케오미일 23평형 3개동, 케오미일10평형17개동 관리동1,각각 독채형식 주차장비, 수려한경치,수원원,기도원적함 여유대지,많은,계곡있음
- 매매가 : 13억(근저당2억9천만원) • 실투자금 : 11억1천

#### 모텔매도

전라남도 여수시 율산면 월산리 • 대지 : 1038㎡, 건물1095㎡

- 지하1층지상4층 객실 : 29개 엘리베이터 있음 율산산단입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업 지정업소
- 매매가 : 10억(근저당3억6천대출승계가능) • 실투자금 : 6억4천

####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한국아파트입후문부근 코너

- 대 지 : 262㎡ 제2종일반주거지역 원룸,빌라,점포형주택 적합
- 매매가 : 1억5천만

####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북광주IC 부근 생산녹지

- 대 지 : 1425㎡ 투자적합 도로있음 영산강변 경치좋음
- 매매가 : 2억2천5백만

####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일동초교부근

- 대 지 : 210㎡ 제2종일반주거지역 코너 원룸,빌라 적합
- 매매가 : 1억3천만

#### 과수원매매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신천리

- 전.담 : 9150㎡ 계획관리지역 배나무 15~20년생 2000주이상 지대가 높아 과실당도 아주 좋음
- 매매가 : 1억3천5백만

#### 토지매매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 공정용지및잡종지 : 8480㎡ 공정부지 : 3192㎡의 잡종지 담양읍과방면2차선 도로점 4차선도로 계획있음
- 매매가 : 6억4천만

**대표전화 ☎511-6633**  
핸드폰 : 010-6522-7731 FAX : 512-4589

###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매매

- ▶ 산월IC 교통광장 접 코너
- ▶ 면적: 700평, 1350평 분할가 광고하고 최고!!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 화순 북면 수련원,요양원,도원부지 매매

- ▶ 임야: 4700평, 단층건물: 250평 (5동)
- ▶ 단지내 도로개설됨 소나무, 산악초 재배단지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 ▶ 대 지 : 1500평(6차선 도로접)(700평)
- ▶ 자연녹지 : 700평 ▶ 일반공업지역 : 800평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 ▶ 대 지 : 538평, 680평, 1000평
- ▶ 건 물 : 300평, 200평, 200평
- ▶ 높 이 : 8.9, 10.9m
- ▶ 호이스트 : 유, 유, 유
- ▶ 매매가격 : 협의후결정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